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Mediated by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김창기*, 이진성**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Chang-Gi Kim(cgkim@ut.ac.kr)*, Jin-Sung Lee(bubble-tea@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농촌지역(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206명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방략을 매개로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에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분석 결과, 우울감과 정(+)적인 관계는 관계적 배제, 문화적 배제, 지역사회 배제, 기본서비스배제, 경제적배제이며, 부(-)적인 관계는 긍정적 정서조절, 부정적 정서조절로 나타났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우울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적 배제, 지역사회 배제, 경제적 배제이며,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참여 배제, 긍정적 정서조절방략, 부정적 정서조절방략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로분석결과,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은 완전매개효과임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는데 더불어 정서조절 방략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중심어 : |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 | 사회적 배제 | 정서조절방략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on of married in rural areas mediated by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f the 206 immigrant women in chungcheongbuk-do. The study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show positive(+) correlation of the relational exclusion, cultural exclusion, community exclusion, basic service exclusion, economical exclusion, and negative(-) correlation of the pos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nega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econd,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re positive(+) effect of the relational exclusion, community exclusion, economical exclusion, negative(-) effect of the social participation exclusion, exclusion. Third, Results of path verify that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on perfect mediated by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erefore, To decrease of Depression of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is to decrease Social Exclusion, Also there is included positively a strategy to increase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 keyword : | Depress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 Social Exclusion |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교통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접수번호 : #121231-006

접수일자 : 2012년 12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1월 25일

교신저자 : 이진성, e-mail : bubble-tea@hanmail.net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 중 하나는 결혼 이민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75,011명, 2008년 122,552명, 2011년 2월 142,38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여성 86.8%, 남성 13.2%로 결혼이주여성이 6.6배를 차지하고 있다[1]. 즉, 결혼이주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타 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적응과정에 문화적 변화는 개인의 대처능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에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2][3]. 우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로서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울이라는 정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슬픈 감정 상태와 심한 정신병적 상태를 양극으로 하는 하나의 연속성상에서 설명되고 있다[4]. Beak(1967)에 의하면 우울증으로 인해 생활상의 행복이나 안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상실했다고 지각하며, 이러한 상실과부정적인 기대는 슬픔, 실망, 무감동 같은 우울증과 관련된 전형적인 정서 상태들을 초래하여 의도적인 자기비난이 확대가 되어 병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5].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과 이주가 동시에 이루어진 여성으로써 일반여성에 비해 우울감의 정도가 비슷하거나 낮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6].

이에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 즉, 한국에서의 생활에 성공적 적응을 위해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과 이를 대처하는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위험요인으로는 가정 폭력, 낮은 경제수준, 문화적 충격, 부족한 사회연결망, 사회적 갈등, 제도적 서비스에서의 소외 등 이다 [3][7-9]. 또한 보호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 등 이다[6][10][11].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환경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차원의 다양한 영역에서 결핍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12].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적 배제’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가고 있다. Morris et al.(2009)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는 보건, 교육, 경제, 사회적 서비스, 주거의 영역을 포함하고, 단순히 여러 종류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수준의 박탈과 격리의 메커니즘으로 정의하였으며, 사회통합과 연대감을 훼손시키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에서의 통합과 연대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13].

또한 정서조절은 개인의 안녕감과 성공적인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정서조절은 정신병리와도 중요한 연관이 있다[14]. 즉, 불안, 우울, 분노나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개인들은 여러 가지 정서조절 방략을 사용하며 이러한 방략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심리적·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15]. 특히, Nolen-Hoeksema(1991)는 우울이 심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서조절방략으로 반추(rumination)와 주의분산(distraction)¹을 활용한다고 하였다[16].

특히, 정미현와 김남재(2008)의 연구에 의하면 부적응 도식, 사회고립/소외, 실패, 위험/질병취약성은 정서조절 방략을 부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17].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연구로 결혼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소외 즉, 가족과의 관계, 문화적 활동, 사회적 참여, 지역사회, 기본서비스, 경제적 수준에서 배제되는 사회적 배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서조절을 위해 생리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정서조절방략을 매개변수로 설정하

¹ 반추는 ‘우울 기분이 들 때 부정적 정서나 피곤과 같은 우울증상과 그 의미에 주의를 계속 맞추는 사고와 행동’을 말하며, 주의분산은 ‘우울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희하고 중성적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반응’을 말한다.

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 정서조절방략, 우울감의 수준(정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 정서조절방략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II. 이론적배경

1. 사회적 배제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서구 복지선진국들에서는 종래의 빈곤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18]. 특히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성과 역동성, 배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의 균열과 붕괴의 위험성, 배제를 유발하는 복잡한 메커니즘 그리고 해결의 어려움 등에 의해서 20세기 말 시대의 주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19][20].

이러한 맥락에서 Pierson(2001)은 사회적 배제를 “개인, 가족, 집단 또는 이웃들로부터 이들이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빼앗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으며[21], Figueiredo와 Haan(1998)은 사회적 배제를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박탈이나 사회적 고립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한계화, marginalization)된 개인이 겪는 상황이나 과정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응집력의 붕괴, 양극화의 발생, 사회적 관계의 파편화 등과 같이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22]. 또한 강신욱 외(2005)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 노동, 경제,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자원의 박탈 또는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지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고, 유럽 연합의 사회지표를 기초로 재정, 교육, 고용, 실업,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접근성의 8가지로 구분하여 배제집단의 비율 및 배제의 중첩정도를 파악하였다[23].

SEU(2006)는 사회적 배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관계적 배제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접촉 빈도와 내용에서의 배제를 의미한다. 둘째, 문화적 배제는 여가시설 활용, 공연 참석, 외식, 여행 등의 여가 활동 기회의 제한을 의미한다. 셋째, 정치적 배제는 지역사회 이익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 종교활동에 있어서의 제한을 의미한다. 넷째, 기본서비스 배제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상점, 쇼핑센터, 슈퍼마켓, 은행 및 우체국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을 의미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배제는 동네사람들과의 친숙함 및 안전 등에 대한 배제를 의미한다. 여섯째, 재정상품 배제는 은행예금, 연금 등으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 일곱째, 물질상품 배제는 소비재의 소유권 등으로부터의 제한을 의미한다[24][25].

본 연구에서는 김태준(2010)의 연구를 근거하여 사회적 배제를 관계적 배제, 문화적 배제, 사회적 참여 배제, 지역사회 배제, 기본서비스 배제, 경제적 배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25].

2. 정서조절방략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이란 내적 감정상태 및 정서와 관련된 생리학적 과정의 발생, 강도, 지속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개인이 사회적, 정서적 만족이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 유지,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과정으로 생활전반에 걸쳐 나타난다[26]. 그러나 정서조절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는데 Morris와 Reilly(1987)는 정서조절을 정서를 다루는 방략들로 정의 내렸다[27].

이에 Gross(1999)는 정서조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정서를 조절하는 것과 정서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도 정서조절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정서조절이다. 셋째, 의식적인 정서조절과 무의식적인 정서조절 과정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반추(rumination)와 억압(repression)은 모두 주의를 사용하는 정서조절 방략이지만, 반추가 우울한 증상이나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적인 과정인 반면, 억압은 불쾌한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 주의적 방어이다[28].

또한 Garnefski 등(2001)은 정서가 무의식 또는 의식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 조절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선택적 주의 과정, 기억 왜곡, 부정, 투사와 같은 무의식적인 인지 과정이나, 수용, 긍정적 초점 변경, 계획 다시 설정, 자신이나 타인 비난, 반추, 과국화와 같은 의식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 전략의 하나으로써 정서가 조절될 수 있다고 보았다[29]. 이지영과 권석만(2009)은 정서조절방략을 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과 부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을 구분하였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기,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인지적으로 수용하기, 즐거운 상상하기, 문제해결행동 취하기,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 친밀한 사람 만나기, 기분 전환활동 하기 등의 8개 방략은 '적응적 정서조절방략'으로 구분되었고, 타인 비난하기, 타인에게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폭식하기, 탐닉활동 하기 등의 6개 방략은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으로 구분하였다[30].

본 연구에서는 Garnefski 등(2001) 및 이지영과 권석만(2009)의 연구를 근거하여 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으로는 조망확대, 수용,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으로는 자기 비난, 타인비난, 반추, 과국화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29][30].

3. 우울감

우울은 절망감, 불안정, 우울한 기분, 슬픔과 같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상시 활동에 대하여 관심이나 즐거움을 잃은 상태를 의미한다[31]. DSM-IV는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의 주관적인 보고, 흥미나 즐거움의 저하, 체중감소나 체중 증가, 불면과 과다수면,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피로나 활력상실, 죄

책감, 사고력과 집중력 감소, 자살 충동이나 자살 기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중 다섯 개의 증상이 2주 연속 지속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32][33].

이러한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 첫째, 삶에 흥미가 없으며 귀찮고 의욕상실과 피로감이 나타난다. 둘째, 신체적으로 볼 때 수면과다의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며 별다른 병의 증상 없이 두통, 흉통, 등을 느끼고, 성욕상실, 변비 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셋째, 일상생활에서는 사소한 일 또는 가상적인 행위에 강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성격적으로는 결단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과민 장애를 일으키고, 집중력이 부족하여 혼자 틀어 박혀 있기를 좋아하게 된다[32].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좌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화적 스트레스와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배우자의 폭력과 고부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우울감이 높아 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률이 높아 질 것이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예방적 노력들이 필요하다[34].

본 연구에서는 전경구와 이민규(1992)의 연구를 근거하여 우울감을 우울한 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적 저하, 대인관계의 실패감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35].

4. 선행연구

첫째,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태준(2010)의 연구에 의하며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가 높을수록 노인 우울이 높아지며, 사회적 배제는 노인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또한 배지연 외(2006)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배제(주관적 빈곤감), 사회적 배제(자녀와의 유대가 약함), 지역사회 배제(동네 배제), 노인에 대한 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36]. 특히, 이연희와 전해성(2011)은 중년기여성을 대상으로 삶의 기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검증하였다. 즉, 삶의 기대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다는 것으로 이는 삶에 대한 소외감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37].

둘째, 정서관련 변수 및 정서조절과 우울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순희(2011)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 여성의 정서조절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정서조절과 우울감의 관계는 부(-)적인 관계로 분석하였다[38]. 신혜인(2009)은 대학생 532명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전략 중 능동적 정서조절양식은 부(-)적인 관계로서 적게 사용할수록,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은 정(+)-적인 관계로서 많이 사용할수록,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양식은 부(-)적인 관계로서 적게 사용할수록 우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39]. 특히 박형원(2010)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향수병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요인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검증하였다[40].

셋째, 우울에 있어서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미현과 김남재(2008)는 여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응 도식(정서결핍,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사회고립/소외, 결합/수치, 실패 도식)과 우울관계에서 정서조절전략은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유의미하여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정문수(2012)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강도는 우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 중 부적응적 전략이 우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부적응적 전략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1].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 사회적 배제와 정서조절 전략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전략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앞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근거하여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한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1] 같이 도식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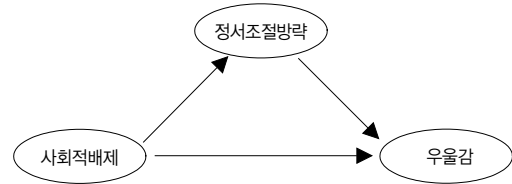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충북의 농촌지역(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약 211명이다. 지역적 구분으로는 청원군 54명, 음성군 43명, 진천군 36명, 옥천군 29명, 증평군 23, 영동군 14명, 단양군 12명이었으며, 나라별 구분으로는 중국 73명, 베트남 67명, 필리핀 36명, 네팔 19명, 캄보디아 16명이며, 구체적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2주간이었으며,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직접 수거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부실하거나 성의 없이 응답한 자료 5부를 제외하여 206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n	%	항목		n	%		
거주 지역	청원군	52	25.2	나의 직업	전문직사무직	14	6.8		
	음성군	42	20.4		자영업서비스업	22	10.7		
	진천군	36	17.5		농업생산직	116	56.3		
	옥천군	27	13.1		무직	54	26.2		
	증평군	23	11.2		합계	206	100.0		
	영동군	14	6.8		남편의 직업	전문직사무직	19	9.2	
	단양군	12	5.8			자영업서비스업	34	16.5	
합계	206	100.0	농업생산직	131		63.6			
결혼 전 국적	중국	70	34.0	무직		22	10.7		
	베트남	67	32.5	합계		206	100.0		
	필리핀	35	17.0	나의 학력		중학교 이하	74	35.9	
	네팔	18	8.7			고등학교	93	45.1	
	캄보디아	16	7.8		대학교 이상	39	18.9		
	합계	206	100.0		합계	206	100.0		
	남편의 나이	20대 이하	122		59.2	남편의 학력	중학교 이하	46	22.3
30대		68	33.0		고등학교		92	44.7	
40대 이상		16	7.8		대학교 이상		68	33.0	
합계		206	100.0	합계	206		100.0		
나의 나이		30대 이하	47	22.8	남편의 학력		중학교 이하	46	22.3
		40대	124	60.2			고등학교	92	44.7
		50대 이상	35	17.0			대학교 이상	68	33.0
	합계	206	100.0	합계		206	100.0		

3. 연구도구

3.1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 척도는 SEU(2006)에서 개발한 척도를 김태준(2010)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24][25]. 이 척도는 총 26개 문항으로 관계적 배제(4점), 문화적 배제(4점), 사회적 참여 배제(5점), 지역 사회 배제(5점), 기본서비스 배제(4점), 경제적 배제 영역으로 구성된 척도이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1$ 이었다.

3.2 정서조절 방략

정서조절방략 척도는 Gamefski 등(2001)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김소희(2004)가 번안, 수정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이며,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29][42].

이 척도는 크게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나뉜다. 긍정적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으로는 조망확대, 수용,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의 5가지 하위요인이 있으며, 부정적 정서 조절의 하위요인으로는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과국화의 4가지 하위요인이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65$ 였다.

3.3 우울감

우울감 척도는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ES-D는 Radloff(1977) 개발하고 전경구·이민규(1992)가 번안하였다[35][43].

이 척도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들을 측정하는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우울한 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적 저하, 대인관계의 실패감,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대상자들은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1주일 동안 어떻게 느꼈는지 거의 드물게(0점), 때때로(1점), 상당히(2점), 대부분(3점)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7$ 이었다.

4. 분석방법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에 대한 수준(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 정서조절방략은 우울감에 영향(연구문제 2)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은 매개역할(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구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주요변수의 수준(정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사회적 배제, 정서조절방략, 우울감 및 그 하위변수의 수준(정도)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기술 통계치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배제	관계적 배제	206	1.00	4.00	1.7433	.54623
	문화적 배제	206	1.00	5.00	3.3769	1.03172
	사회적 참여배제	206	1.00	5.00	4.0325	1.18248
	지역사회 배제	206	1.00	4.00	2.7251	.51608
	기본서비스 배제	206	1.00	4.00	1.7194	.59898
	경제적 배제	206	1.00	4.00	2.5352	.70944
정서 조절 방략	긍정적 정서조절	206	1.00	4.00	3.0707	.37534
	부정적 정서조절	206	1.00	4.00	2.6627	.46195
	전체	206	2.00	3.70	2.8675	.32299
우울 감	우울한 감정	206	.00	3.00	.8297	.62874
	비관적 감정	206	.00	3.00	.8186	.73992
	긍정감정의 저하	206	.00	3.00	1.2749	.80976
	대인관계의 실패감	206	.00	3.00	.7411	.69076
	전체	206	.06	2.67	.9161	.53412

첫째,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살펴보면 “관계적 배제”는 평균 1.74로 낮은 수준이었다. “문화적 배제”는 평균 3.38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적 참여 배제”는 평균 4.03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사회 배제”는 평균 2.73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기본 서비스 배제” 평균 1.72로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적 배제” 평균 2.54로

보통 수준이었다. 둘째 정서조절방략은 전체 평균 2.87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변수의 수준을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조절방략”은 평균 3.07로 높은 수준이었다. ‘부정적 정서조절방략’은 2.66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우울감은 전체 평균 .91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하위 변수의 수준을 살펴보면, ”우울한 감정“은 평균 .83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비관적 감정“은 평균 .82로 낮은 수준이었다. ”긍정감정의 저하“는 평균 1.27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대인관계의 실패감“은 .92로 낮은 수준이었다.

2. 변수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 및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3]와 같다.

표 3. 상관관계 계수

구분	A	B	C	D	E	F	G	H	I	
사회적 배제	A	1								
	B	.169 (*)	1							
	C	.068	.319 (**)	1						
	D	.146 (*)	.122	.137	1					
	E	.190 (**)	.015	.013	.513 (**)	1				
	F	.151 (*)	.282 (**)	.156 (*)	.201 (**)	.106	1			
정서 조절 방략	G	-.197 (**)	-.169 (**)	-.039	-.102	-.258 (**)	-.027	1		
	H	.030	-.194 (**)	-.015	.010	-.034	-.123	.139 (*)	1	
우울감	I	.292 (**)	.184 (**)	-.049	.229 (**)	.146 (*)	.228 (**)	-.327 (**)	-.249 (**)	1
	J	.204 (**)	.177 (*)	-.025	.164 (*)	.143 (*)	.177 (*)	-.332 (**)	-.109	.891 (**)
	K	.158 (*)	.139 (*)	-.058	.222 (**)	.089	.219	-.262 (**)	-.295 (**)	.757 (**)
	L	.300 (**)	.076	.031	.180 (**)	.099	.179 (*)	-.151 (*)	-.204 (**)	.490 (**)
	M	.206 (**)	.152 (*)	-.122	.112	.106	.070	-.380 (**)	-.140 (*)	.838 (**)

A=관계적 배제, B=문화적 배제, C=사회적 참여배제, D=지역사회 배제, E=기본서비스 배제, F=경제적 배제, G=긍정적 정서조절방략, H=부정적 정서조절방략, I=우울감(전체), J=우울한 감정, K=비관적 감정, L=긍정감정의 저하, M=대인관계의 실패감

*p<.05, **p<.001

첫째, 우울감과 정(+)적인 관계는 관계적 배제(r=.292), 문화적 배제(r=.184), 지역사회 배제(r=.229), 기본서비

스배제(r=.146), 경제적 배제(r=.228)이며, 부(-)적인 관계는 긍정적 정서조절(r=-.327), 부정적 정서조절(-.249)로 나타났다.

둘째, 변수들 간의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r=.513(지역사회 배제와 기본서비스 배제)로 모든 상관계수가 절대값 .7 보다 낮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회적 배제와 정서조절방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정서조절방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와 정서조절방략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1모형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 즉, 관계적 배제, 문화적 배제, 사회적 참여 배제, 지역사회 배제, 기본서비스 배제, 경제적 배제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우울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적 배제(β=.239), 지역사회 배제(β=.176), 경제적 배제(β=.136)이며,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참여 배제(β=-.158)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설명력은 14.6%였다.

둘째, 2모형에서는 1모형의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를 포함하여 정서조절방략의 하위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우울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적 배제(β=.239), 지역사회 배제(β=.176), 경제적 배제(β=.136)이며,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참여 배제(β=-.158), 긍정적 정서조절방략(β=-.298), 부정적 정서조절방략(β=-.207)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정서조절방략의 설명력은 27.5%였으며, 1모형으로부터 12.9%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관계적 배제, 지역사회 배제, 경제적 배제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참여 배제와 정서조절방략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진다. 권명희(2011)의 연구결과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참여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참여가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동료를 만

나게 되고 비교의식 및 상대적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이로 인해 우울감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 사회적배제와 정서조절방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1모형			2모형			
	B	β	t	B	β	t	
(상수)	.334		2.351*	2.063		4.960***	
사회적 배제	A	.234	.239	3.565**	.210	.215	3.431**
	B	.067	.129	1.812	.019	.036	.532
	C	-.299	-.158	-2.294*	-.273	-.144	-2.273*
	D	.182	.176	2.285*	.218	.210	2.952**
	E	-.005	-.005	-.072	-.090	-.101	-1.396
	F	.102	.136	1.977*	.100	.133	2.095*
정서 조절 방략	G			-.424	-.298	-4.680***	
	H			-.239	-.207	-3.354**	
R/R ² /Adj.R ²		.414/.171/.146			.551/.304/.275		
F		6.864***			10.732***		

A=관계적 배제, B=문화적 배제, C=사회적 참여배제, D=지역사회 배제, E=기본서비스 배제, F=경제적 배제, G=긍정적 정서조절방략, H=부정적 정서조절방략

*p<.05, **p<.01, ***p<.001

4.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분석

정서조절을 매개로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고 AMO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square=151.996, df=50, p=.000이었으며, 적합지수는 GFI=.931, AGFI=.875, NFI=.804, IFI=.850, TLI=.806 CFI=.835, RMR=.036, RMSEA=.084로 나타나 적합한 매개효과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이에 대한

경로계수와 매개효과모형은 [표 5][그림 2]과 같다.

표 5. 경로계수

구분	비표준 회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정서조절방략 ← 사회적 배제	-.299	.149	-2.011	*	-.447
우울감 ← 정서조절방략	-3.263	1.329	-2.456	**	-.689
부정적 ← 정서조절방략	1.000	1.915	.763		.249
긍정적 ← 정서조절방략	1.915	1.915	2.511	**	.588
우울한 감정 ← 우울감	1.000				.868
비관적 감정 ← 우울감	.987	.085	11.637	***	.727
긍정감정의 저하 ← 우울감	.327	.108	3.018	**	.220
대인관계의 실패감 ← 우울감	1.123	.079	14.194	***	.887
관계적 배제 ← 사회적 배제	1.000				.315
문화적 배제 ← 사회적 배제	2.029	.763	2.659	**	.338
사회적 참여배제 ← 사회적 배제	.348	.160	2.172	*	.213
지역사회 배제 ← 사회적 배제	2.062	.595	3.467	***	.687
기본서비스 배제 ← 사회적 배제	2.136	.620	3.444	***	.614
경제적 배제 ← 사회적 배제	1.648	.556	2.962	**	.400

*p<.05, **p<.01, ***p<.001

매개효과 모형 [그림 2]에서 검증된 경로 및 그 계수를 살펴보면, 정서조절방략이 매개함으로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의 직접효과는 유의미 안게 되었다. 즉, 정서조절방략을 제외하고서는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은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은 완전매개효과임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는데 이와 더불어 정서조절 방략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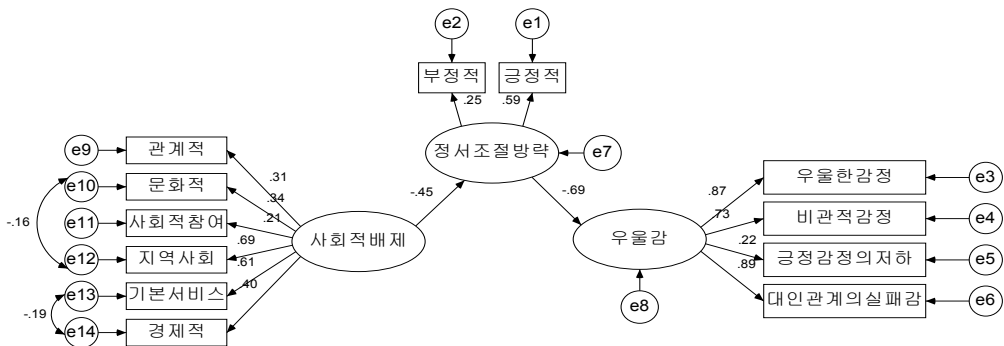


그림 2. 매개효과모형

V. 결론

본 연구는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206명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방략을 매개로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적 배제(평균 1.74), 지역사회 배제(평균 2.73), 기본 서비스 배제(평균 1.72)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문화적 배제(평균 3.38), 사회적 참여 배제(평균 4.03)는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경제적 배제는 평균 2.54로 보통 수준이었다. 정서조절방략은 평균 2.87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우울감은 평균 .91로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회귀분석결과 우울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는 관계적 배제, 지역사회 배제, 경제적 배제이며, 반면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참여 배제와 정서조절방략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효과분석결과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은 완전매개효과임이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김태준(2010)과 배지연 외(2006)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상이하다[25][36]. 또한 정미현과 김남재(2008)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에 있어 정서조절방략은 부분매개 효과가 아닌 완전매개 효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감소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키는데 정서조절방략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데 의의가 있다[17]. 이에 분석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농촌지역 특성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농촌지역 사회활동으로 인해 차별화 또는 비교의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멘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즉, 권명희(201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사회활동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 정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팀장제를 병행해야 한다[44].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리더로 하여 팀을 이루어 모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농촌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本是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이 농촌지역에서 경제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특성화된 농업기술 교육 및 훈련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농업 작목반과 같은 의무적 가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경제적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민·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에서는 정서조절 즉,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쾌하고 긍정적인 활동을 습득케 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시부모 또는 남편과 음악을 함께 듣거나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함께 요리해 보는 시간을 공유하면서 우울에 대한 대처 방식을 알아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충청북도의 군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의 군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나아가 광역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3).
- [2] 김도희, 이경은, “결혼이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15권, 제2호, pp.5-25, 2010.
- [3] 변성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 경험, 순천향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4] R. S. Lazarus, *Patterns of adjustment*. New

- York : McGraw-Hill., 1976.
- [5] A. T. Beck,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7.
- [6] 임정미, *결혼이주여성의 심리 사회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7] 정기선, 한지은,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회*, 제32권, 제2호, pp.87-114, 2009.
- [8] 박시연,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과 '빛속의 사람' 그림의 반응특성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9] 김은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도와 충남(천안·아산)지역 거주*,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0] 임수진, 오수성, 한규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4권, 제4호, pp.515-528, 2009.
- [11] 이정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유형별 불안, 우울, 사회적지지, 자아 존중감과 결혼만족도*,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12] 최혜지,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문화변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1호, 제60집, pp.217-244, 2012.
- [13] K. M. Morris and S. Barnes, “Balloch, Social Exclusion and Social Work: Questions for the Future,” *Social Work Education*, Vol.28, No.3, pp.230-236, 2009.
- [14] 박동건, 조현주, 최대경, “직장에서의 특정 부적 정서 경험에 따른 정서조절이 수행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9권, 제4호, pp.831-852, 2004.
- [15] L. Campbell-Sills, D. H. Barlow, T. A. Brown, S. G. Hoffman, “Effects of suppression and acceptance on emotional responses of individuals with anxiety and mood disord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44, pp.1251-1263, 2006.
- [16] S. Nolen-Hoeksema,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00, pp.569-582, 1991.
- [17] 정미현, 김남재, “부적응 도식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학생생활연구*, 제24권, pp.1-26, 2008.
- [18] D. Byrne, *Social exclusion*,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2005.
- [19] A. M. Grenier and N. Guberman, “Creating and sustaining disadvantage: the relevance of a social exclusion frame work,”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Vol.17, No.2, pp.116-124, 2009.
- [20] G. Room, “Social exclusion, solidarity and the challenge of globalis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8, No.3, pp.166-174, 1998.
- [21] J. Pierson, *Tackling Social Exclusion*, London: Routledge, 2001.
- [22] J. Figueiredo and A. Hann, *Social Exclusion: An ILO perspectiv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r Studies, 1998.
- [23] 강신욱, 김안나, 박능후, 김은희, 유진영,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24] S.E.U., *The social exclusion of older people: evidence from the first wave of the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ELSA)*, Final report.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London, 2006.
- [25] 김태준,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26] R. A. Thompson,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a definition.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pp.73-100),”

-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240), 1994.
- [27] 이지혜, *부적응도식과 결혼만족간의 관계: 정서 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8] J. J. Gross, "Emotion regulation: past, present, future," *Cognition and Emotion*, Vol.13, No.5, pp.551-573, 1999.
- [29] N. Garnefski, V. Kraaij, and P. Spinhoven,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0, pp.1311-1327, 2001.
- [30] 이지영, 권석만, "정서장애와 정서조절방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8권, 제1호, pp.245-261, 2009.
- [3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TR (4th ed.)*, Washington, 2000.
- [32] 이근후 역,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 (DSM-IV)* 서울: 하나의학사, 1995.
- [33] 정지연,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자가지각 및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4] 강혜련,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35] 전경구, 이민규, "한국판 CES-D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 '92년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pp.437-455 1992.
- [36] 배지연, 노병일, 곽현근, 유현숙,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3권, pp.7-27, 2006.
- [37] 이희연, 전혜성, "중년기여성의 삶의 기대, 마음챙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pp.275-284, 2011.
- [38] 유순희,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 정서조절, 삶의 의미와 우울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39] 신혜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정서경험특성과 정서조절방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40] 박형원, "해외이주 한인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재영 한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8호, pp.308-316, 2010.
- [41] 정문수, *정서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42] 김소희,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3] L. S. Radloff,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1, No.3, pp.385-401, 1977.
- [44] 권명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저 자 소 개

김 창 기(Chang-Gi Kim)

정희원



- 1986년 2월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사)
- 1996년 2월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5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지역복지, 다문화, 복지행정, 복지정책

이진성(Jin-Sung Lee)

정회원



- 1998년 2월 :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문학사)
 - 2007년 2월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2년 8월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론